

## Poster for Tomorrow 2016: 내일을 위한 공동체

---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년간 Poster For Tomorrow는 매년 표현의 자유에서부터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권리까지,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성취해낸 것들과 일궈낸 공동체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로 진정 큰 변화는 없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 있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있으며, 사형제 또한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2016년에는 좀 더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받아들인 수많은 포스터들은 사회적 소통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다뤘던 이슈들 대한 경각심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Poster for Tomorrow”이외에도 지난 파리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의 예처럼 소셜 미디어에 노출시킨 이미지들은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경계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는 2016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현상 앞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내일을 위해’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캠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모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적 대립을 거부하고, ‘우리’와 ‘그들’ 같은 식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극단적으로 판가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화와 청취를 통해 서로간의 차이점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상업적, 정치적 제약에 지나치게 갇혀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가 아닌 낮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이들이 국적과, 종교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평화로운 세상에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등한 세계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며, 답변을 통해 행동으로 옮기는 ‘People for Tomorrow’ 공동체를 만드는 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당신이 이 새로운 출발선에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저 누군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첫 단행본에서 말했던대로, “한 사람을 시작으로, 열 명 그리고 천 명이 모이면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전문은 3월 10일 월요일에 출간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Dates for your diary

---

March 10 - Call for Entries open

July 10 - Competition closes

## Contact

---

4tomorrow association  
16 ESplanade nathalie sarraute - 75018 PARIS  
T. +33 14205 8887

facebook.com/posterfortomorrow  
Twitter @poster4tomorrow  
skype poster4tomorrow

info@posterfortomorrow.org  
www.posterfortomorrow.org